

제110회 총회

농어촌주일예배

2025년 11월 16일(주일) / 매년 11월 셋째 주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 55:7, 엡 4:31-32



농어촌선교부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연지동) 총회총림100주년기념관 603호
홈페이지 : <http://www.pck.or.kr/division.php?part=rural>
E-mail : pckr@pck.or.kr TEL : 02-6959-2094 FAX : 02-747-0043

차 례

- ◆ 제110회기 농어촌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3
- ◆ 농어촌주일 개요 5
- ◆ 농어촌주일 예배순
 - 1. 전통적인 주일 예배 형식 6
 -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형식 9
- ◆ 농어촌주일 설교문
 - 1. “기독교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농어촌 선교”(고린도전서 3:6-9) 14
 김석환 목사(증평제일교회/총회농어촌선교부 서기)
 - 2.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3-9, 18-23) 17
 강일성 목사(성덕교회/수도권농어촌목회자협의회 회장)
 - 3. “광야에도 꽃은 핍니다”(이사야 35:1-4) 21
 이상도 목사(영천화산교회/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부회장)
- ◆ 농어촌교회 목회현장 이야기
 -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가는 교회” 25
 소병일 목사(서면중앙교회)
 - “서울노회와 충주노회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29
 김태웅 목사(은혜교회/충주노회 전노회장)
- ◆ 제110회기 총회농어촌선교부 도농직거래장터 안내 35

총회제정 농어촌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개 노회와 9,446개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1930년 제19회 총회에서 농어촌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어촌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제107회 총회에서는 추수감사절기의 풍성함과 감사의 의미를 더해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교단 9,446개 교회 중 3,086개 교회(32.7%)가 농어촌교회로,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라는 시대적 도전 앞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제110회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라는 주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분열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금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되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소멸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 앞에서도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총회는 농어촌주일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농어촌교회는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생명목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비전을 품고 마을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돌봄과 나눔의 목회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와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생명공동체적 신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농어촌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생명공동체입니다.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신앙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배 초청, 직거래 장터, 자매결연 등 다양한 교류의 통로를 마련하여 사랑과 기도의 연대가 이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회는 농어촌목회자협의회와 협력하여 농어촌선교사업을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 총회의 허락으로 조직된 농어촌목회자협의회는 현재 4개 권역(서울, 서부, 중부, 동부)과 38개 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노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선교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목회자 교류와 농산물 유통, 선교 사례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구감소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과 섭리를 신뢰하며,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요 '생명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5년 농어촌주일이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루터기 생명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정 훈 목사

농어촌주일 개요

안성국 목사(익산평안교회)

1. 예배의 명칭과 주제

- 총회가 제정한 본 예배의 공식명칭은 “농어촌 주일예배”이다.
- 본 예배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 부여하신 위대한 생명의 신비를 성찰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땀과 노동을 버무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일구게 하신 창조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다.

2. 예배의 지향점

- 본 예배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드러진다.
- 본 예배는 주일예배로 기획되었기에 은혜와 기쁨의 잔치라는 주일예배의 특징을 함께 지향한다.
- 본 예배는 직접적으로 농사나 어업과 관련이 적은 일반 교회에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때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겨주신 본질적 사명으로서의 땅의 경작을 상기하는 농신학적 관점, 창조신학적 관점을 예배 안에 담아내기 바란다.

3. 예배의 중점사항

- 본 예배는 다양한 예배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이한 두 가지 형식으로 기획하였다. 첫째는 일반 전통적인 주일예배의 형식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형식이다.
- 전통적 예배형식은 주일예배 자체의 형식을 중시하는 교회 공동체나 공식적 기관 및 단체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획예배는 역동적 예배를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선호하는 예배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겠다.
- 물론 본 예배기획은 예배모범이므로 각 공동체의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가감하고 알맞게 적용하여 사용하기를 바란다.
- 예배의 기본요소는 찬양, 기도, 말씀선포 등으로 일반 예배와 대동소이하다. 단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는 맥락의 흐름에 따른 장면의 연출과 국악찬송을 채용하였다.

농어촌주일 예배순(시나리오~형식)

1. 전통적 주일예배 형식

예배로 부름.....인도자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입례의 찬송.....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다같이

1.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2.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3. 주 우리의 방패와 창 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배의 기원.....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의 숨결을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땀 흘려 경작할 수 있는 땅과,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분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은택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찬송가 24장 왕되신 주.....다같이

1.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하도다
2. 소망의 주 다 찬양 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3.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참회와 고백의 기도.....다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인도자 :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잘못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우리도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푸른 하늘과 더없이 깨끗한 구름과 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넉넉히 내어주는 정직한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탐욕에 어두워 이를 망가

프리고 말았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순결한 바다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그릇에 교만한 기술이
빚어낸 문명의 찌꺼기와 독을 풀고 말았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같이 : 인애하신 주님,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가슴을 찢어 참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
으시고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사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배치되면 좋다.

사죄의 말씀.....다같이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

평화의 인사.....다같이

인도자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사죄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평화의 인사로
서로 문안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찬송.....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다같이

1.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2.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3.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4.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후렴)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회중 기도.....말은이

※ 기도 인도 후 주님의 기도로 연결하여 마치는 것이 좋다.

성경봉독.....말은이

찬 송.....찬양대

설 교.....설교자

설교 후 기도.....설교자

응답의 찬송.....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다같이

1.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2.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3.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 옥토로 만들어 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봉 헌.....**다같이**
봉헌기도.....**말은이**
교회소식.....**인도자**
파송의 찬송.....**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다같이**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씨 깊도다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아멘

위탁의 말씀.....**인도자**
 평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사
 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축 도.....**집례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 본 예배형식은 『총회예배예식서』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2022) 주일예배의 형식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형식

예배의 부제 : “농부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 ※ 본 예배는 복음서의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모티브로 기획된 예배이다. 사전에 이를 예배 공동체에 알리고 그 의의를 설명해 주면 더욱 좋겠다.
- ※ 예배에 사용된 찬송이 국악곡이므로 예배 전에 미리 회중들과 함께 충분히 불러보는 것이 좋다.
- ※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는 피아노와 국악기(사물악기)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각 장면의 한마음 기도는 침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중의 선호도에 따라 통성기도도 가능하다.
- ※ 마침기도 1,2,3은 회중에게 신뢰받는 기도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여 목회자가 점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예배로 부름.....인도자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입례의 찬송.....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찬양대/다같이

1.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2.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초목아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예배의 기원.....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의 숨결을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맘 흘려 기경할 수 있는 땅과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분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은택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굳어버린 땅을 기경하며

이끄는 말.....인도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만물에 가득찬 주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합시다.

경배의 찬송.....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다같이

1.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2.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3. 은혜로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 “주의 전에 나올 때에”(문성모, 『우리가락 찬송가와 시편 교독송』 서울: 가문비, 2012. 1장)를 사용할 수 있다.

경배의 기도.....다같이

인도자 :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그리고 명예와 축복이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로 인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는 우리 형제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 우리 자매인 달과 별들을 하늘에 아름답게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제인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모든 창조세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우리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으며 깨끗한 자매인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칠후 같은 어둠을 비춰줄 밝고 강한 우리 형제인 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 우리를 지키시고 지탱하게 하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여러 색깔들의 꽃들과 풀을 피어나게 하는, 어머니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또한 연약함과 환난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실 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 기도문은 아씨의 프랜시스 “태양의 찬가(Canticle of the sun)”를 활용하였다.
 ※ 목회자의 신학적 지향점에 따라 적절하게 손질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마음 기도.....인도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았는지 되돌아 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우리의 심령이 싹을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침기도1.....말은이

※ 본 순서의 마침기도는 예배의 맥락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으로의 변화를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를 바란다.

■ 딱딱한 돌맹이를 담아내며

이끄는 말.....인도자

복음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회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받을 정결하게 회복합니다.

참회의 찬송.....찬송가 632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다같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이 곡은 본래 3/4박자인데 이를 12/8박자로 편곡하여 굿거리장단에 부르면 좋다.

※ 찬송은 차분하고 충분히 여유로운 속도로 2회-3회 정도 부른다.

참회의 기도.....다같이

인도자 :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욕심에 물들어 잘못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푸른 하늘과 더없이 깨끗한 구름과 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넉넉히 내어주는 정직한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탐욕에 어두워 이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회 중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순결한 바다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그릇에 교만한 기술이 빛어낸 문명의 찌꺼기와 독을 풀고 말았습니다.

다같이 :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음 기도.....인도자

이제는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세상적인 도전들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성공과 야망을 위해 내어 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돌들을 회개의 바구니에 담아냅시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2.....말은이

※ 본 순서의 마침기도는 예배의 맥락에 따라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를 바란다.

■ 가시떨기를 걷어내며

이끄는 말.....인도자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 아래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꽃을 피우고 창공을 향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의심과 염려의 가시떨기를 단호하게 걷어냅시다.

확신의 찬송.....찬송가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다같이

1.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 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2.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 위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3.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 이외에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를 사용할 수 있다.

확신의 기도.....다같이

인도자 : 우리는 한 분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회 중 :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으로 나신 이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 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이다.

인도자 :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회 중 :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다함께 :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 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본 기도문은 니케아신경으로 『총회예배예식서』(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2022), 52쪽에서 인용하였다.

한마음 기도.....인도자

이제 우리가 더욱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걱정과 염려의 가시떨기를 걷어냅니다. 의심과 불신의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더욱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밭에서 영적인 가시떨기들을 모조리 뽑아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 기도3.....말은이

※ 본 순서의 마침기도는 예배의 맥락에 따라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들을 걷어내길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 좋은 땅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며

성경봉독.....말은이

특 송.....찬양대

설 교.....설교자

결단의 찬송.....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다같이

1.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2.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3.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4.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겨레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결단의 기도.....다같이

※ 다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다. 기도 후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봉 헌.....다같이

※ 이때 담당자를 정해 감사의 찬송을 부르거나 적절한 반주를 해주면 좋다.

봉헌기도.....말은이

■ 다시 삶의 자리로

교회 소식.....인도자

파송의 찬송.....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다같이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2.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렵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3.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 ※ “예수님이 좋은 길”과 같은 밝고 경쾌한 국악 복음성가를 불러도 좋다.

위탁의 말씀.....인도자

평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축 도.....집례자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기독교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농어촌 선교”

김석환 목사(증평제일교회/총회농어촌선교부 서기)

<고린도전서 3:6-9>

-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나라
- 8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갓 태어난 아기가 울니다. 그에게 젖을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배고파서 울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던 아기가 깨어나면 또 울니다. 아기가 깬 이유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젖을 주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젊었을 때의 충기가 사라지고 인지력도 떨어지며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은 상태의 노인이 꼭기마저 끊으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로병사의 인생 주기에서 먹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긴 이유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유는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8:3)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이야기에서 먹는 것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삶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와 연관된 농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마7:17),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마9:37),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마13장),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마20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21장), 무화과나무의 교훈(마24장)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풍량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했던 어부들인 제자들이 밤 새 헛그릇질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지시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농사와 바다와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교회 내에는 분쟁이 심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전1:12)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주며 가꾸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을 “아무 것도 아니로되”라고 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물을 주며 가꾸는 것은 열매를 얻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행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사역자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으로서 가르침을 줄 때에 농사와 관련하여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농사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성도의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각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좋아하는 사람, 혹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패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 버렸기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없고 교회 내에는 분쟁이 생기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산업화 이후로 도시는 팽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공장과 각종 서비스 산업과 IT산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인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먹거리는 땅과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서 먹거리를 얻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도시의 팽창은 농어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대도시로의 집중은 지방도시의 소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어촌 선교’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아닙니다. 도시가 농어촌과 연계하여 상생하자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땅과 바다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업과 어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성을 되찾게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물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파종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오래 폭염이 지속되어 싹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에 나간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줘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의 어선에 카메라를 들고 기자가 함께 타고 바다에 나갔 습니다. 그런데 그 날 잡은 물고기는 평상시보다 적었습니다. 그 때 어부가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 니다. '바다가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오늘 적게 잡았으면 많이 잡을 날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어져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AI에게 물어 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 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기에 낭패를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 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횡수가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 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맘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기독교 영성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사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돕는 차원에서의 선교가 아닙니다. 농어촌 선교는 하나님의 밭의 형 태로 사역의 현장을 봤을 때, 밭마다 그 재배하는 식물이 다르듯이 도시와 농어촌의 사역 형태가 다를 뿐 수 고는 동역자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섭리 가운데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는 필수선교입니다.

점점 세속의 때가 묻어가는 옷을 잠시라도 벗고 흠냄새를 맡고 자라나는 배추 한 포기,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의 주황색 감들, 바다의 상황에 따라 밭이 묶이기도 하고 출항하기도 하는 어선 한 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본래 주어진 신선한 영성을 되살려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강일성 목사(성덕교회/수도권농어촌목회자협의회 회장)

<마태복음 13:3-9, 18-23>

-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1월 16일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과 함께 우리 교단총회가 지키는 농어촌 주일이다. 매년 추수감사절은 지키면서 농어촌 주일은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총회에서 좋은 자료집을 보내 주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시골교회이다 보니 우리 자신을 위한 농어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 금년에는 꼭 지켜보려고 한다. 농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가 농어촌 주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도시 교회는 오죽하겠나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그것도 도시 교회가 농어촌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감사드린다. 혹시라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꾸어 농어촌 교회를 생각하며 농어촌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냇두리와 같은 나의 이 말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도시 교회 목회자가 말이다.

나는 농촌 교회에서 목회를 한지가 25년째 접어들고 있다. 560평이나 되는 땅에 농사도 짓고 있다. 본래 시골에서 자랐기에 농사짓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갈수록 힘이 든다. 하지만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 때마다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난해 늦은 봄! 배추 모종을 심은 적이 있다. 봄배추는 처음 심었다. 볼품없던 모종이 때가 되니 얼마나 충실하게 잘 자라는지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농부 목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는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워 교회 권사님께 얘기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하시면서 가르쳐 주었다. 봄배추는 ‘아이고 답다. 아이고 답다’ 그러면서 쑥쑥 자라고, 가을배추는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그러면서 쑥쑥 자란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금년에도 가을 김장 배추를 200포기 심었는데 일부는 피약벌에 말라 죽고 160포기 정도가 변화된 날씨와 새벽공기에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그러면서 잘 자라서 속이 팍 차도록 묶어주어야 했다.

씨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미래의 풍성한 수확이 이 작은 씨 뿌림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씨 뿌리는 비유’는 농촌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씀이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설명까지 해주고 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안타깝다(10절).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였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13~14절).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겠다(15절).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이는 단순히 복음의 수용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만이 아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그 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얘이기도 하다. 도시목회와 농어촌 목회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밭은 다르지만, 씨는 같고, 목적은 같다.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어질 씨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실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주는 신비요,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도시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며 섬겨야 좋을지 생각해 보려 한다.

1. 밭의 환경은 다르지만 씨는 같고 함께 기경하고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의 밭은 흙냄새가 가득하지만, 도시의 밭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속에 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씨앗은 같은 복음이다. 도시 교회는 풍요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콘크리트같이 굳어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수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마음은 바쁨과 경쟁으로 딱딱히 굳어졌을 수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 10: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다. 간혹 도시 교회 가운데는 농어촌 교회를 향해 주고 베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빈정대거나 무시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함께 같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함께 심령을 갈아엎는 회개가 필요하다. 특별히 농어촌 주일을 맞아 도시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생각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도시 교회가 농어촌 교회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의 밭은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한 예로 제가 속해 있는 서울노회는 오래전부터 도시와 농촌 교회 간에 자매결연 하여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농촌부에서는 도농자매교회 간담회를 통해서 모범적인 교회를 발굴해 사례를 발표하고

격려한다. 또 이날이면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고, 식사와 차를 나누며 자매교회 간에 서로 협력할 것을 찾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노회 농촌부에서는 농촌목회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목회자 부부 또는 가족 수련회를 통해 힘을 얻게 해주고 있다. 금년에는 70여명이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왔다. 이와 같은 모델이 될 만한 수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성덕교회는 자매교회인 송정교회 실버찬양대를 해마다 초청하고 있다. 금년에도 11월 30일 다섯째 주일 오후에 자매교회 찬양대를 초청하여 ‘찬양의 밤’을 가지므로 하늘엔 영광!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

농부는 철을 따라 씨를 뿌리지만 그때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 교회는 종종 ‘결과 중심’으로 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정의 신앙’을 배워야 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한다. 씨를 뿌리려면 묶은 땅을 갈아엎고,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앞장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2.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밭의 염려를 뽑아내야 한다.

씨를 뿌려도 돌밭은 얇은 흙으로 인해 씨가 자라다가 햇볕에 타버린다. 금년에 배추 모종을 심었지만 피약밭에 타버린 모종이 40포기 정도가 되었다. 할 수 없어 죽은 곳에 쪽파를 심어놓았다. 모든 교회가 다 빠른 성장과 성과를 원하지만, 깊이 없는 신앙은 금세 시들고 말라버린다. 씨를 뿌린 농부들의 꾸준한 돌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얻듯이 교회는 꾸준한 믿음의 땀과 기도 속에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밭의 염려를 뽑아내야 한다. 신앙의 깊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진다.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자라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도시 교회는 돌밭과 가시밭의 위험 속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경쟁과 명예심 등이 복음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 교회는 인적자원, 물질 자원, 지적자원 등이 부족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 모두가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밭의 염려를 뽑아내야 한다. 부족하지만 모두가 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하고 상생해야 한다. 도농교회가 함께 단순한 복음의 진리와 기쁨을 회복해야 희망이 있다.

3. 좋은 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좋은 밭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도시 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성도들은 정직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 한 교회의 기도를 보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겔22장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다가 얻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고 멸하고 보응하였다’고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렘5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고 했다. 바울은 롬5:19 절에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다.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는 도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그 밭은 더욱 기름진 옥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돕는 교회’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요, 서로 협력 상생하는 교회여야 한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길을 찾는다면 분명히 길이 있다. 기도는 한 알의 씨앗처럼 작게 보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에 빛진 자들이다. 빛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 기도하며,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뿌리는 자의 손을 귀하게 여기신다. 씨는 귀하고 귀하지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손이 없다면 열매는 없는 것이다. 우리 모든 목회자, 교사,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이 바로 그 손이다. 특별히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의 손을 격려하고, 그 수고를 위로해야 한다. 농어촌 교회가 한국교회의 받이요, 못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는 교회! 나눔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와 물질을 나누고, 감사와 풍요를 나누고,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예배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다. 씨는 뿌려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헛되이 뿌리게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관심, 기도, 섬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의 섬김을 통해 부흥을 낳고, 그 부흥이 다시 도시 교회를 깨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환의 은혜 안에서 자란다. 풍성한 추수는 함께 거두는 것이다. 추수의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없다. 이 모두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농부는 이웃과 함께 웃고, 나눔 속에서 감사한다.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함께 웃는 그 날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일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리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다 보면 계절이 지나간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손이,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릴 때이다. 기도로, 후원으로, 방문으로, 사랑으로 씨를 뿌려보자. 그러면 그 씨가 자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다(9절). 같은 비유인 마4장에서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맺고 있다. ‘들으라’는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인 쉘마의 첫 단어이기도 하다(신6:4).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렘9:20).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향한 협력의 부르심으로 듣자. 우리의 씨 뿌림과 기경, 기도와 섬김이 한국교회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밭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100배로 열매 맺길 기도한다.

“광야에도 꽃은 피니다”

이상도 목사(영천화산교회/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 부회장)

<이사야 35:1-4>

-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은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땅입니다. 비는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짧게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백만 송이의 꽃이 동시에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리빙스톤 데이지(Livingstone Daisy)’입니다. 씨앗은 1년 내내 모래 속에서 말라붙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일제히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사막과 같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수확을 멈춘 논과 밭, 젊은이들은 떠나고, 일할 사람은 줄어 텅 빈 마을, 교회학교에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해진 예배당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메말라 갑니다. “이 땅에서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라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농어촌 교회의 한숨입니다.

그러나 ‘리빙스톤 데이지(Livingstone Daisy)’를 떠올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바로 그 약속의 장면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리로다.” 사람이 떠나고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씨앗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은 광야 같은 땅에 생명의 꽃이 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농어촌의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마른 땅을 아신다-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1절)

하나님은 광야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농어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낮의 햇살 아래서 일해도, 결실은 점점 줄고, 농가에는 사람이 없고, 밭두렁에는 잡초가 더 무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상은 그곳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땅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마을을 안다. 나는 너희 교회를 안다. 나는 그 눈물을 안다.”

그분은 우리의 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름조차 잊어버린 그 마을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드러지는 조용한 새벽기도, 논두렁에서 흘러는 농부의 땀, 작은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도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흙의 하나님, 농부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그리고 시골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땅이 마르고 사람의 발자국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땅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묵은 논두렁에서, 작은 교회의 찬양소리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2. 마른 땅에도 약속의 씨앗을 심으십니다.(2절)

하나님은 죽은 땅에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무성하게 피어”라는 표현은 ‘터져 나오다, 폭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조용히 한 송이가 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던 땅이 갑자기 생명력으로 폭발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타고,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광야가 꽃 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그 땅에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회복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세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상징입니다. 레바논은 장엄한 백향목 숲을 이루었고, 갈멜은 비옥한 밭과 과일나무로 무성하고, 사론은 장미와 초원이 어우러진 평야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가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와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목적을 이사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rod.” 다시 말해, 회복의 목표는 인간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의 교회’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농어촌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의 뿌리, 눈물의 기도, 한결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

다. 교회가 작아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찬양입니다. 재정은 적어도,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향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변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광야의 꽃”입니다.

3. 낙심한 손을 붙잡고, 흔들리는 무릎을 세우라(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참 따뜻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 버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니, 그 약속을 힘으로 삼아 일어나라는 초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었고, 무릎은 기도할 힘마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게 하라.”

즉,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피곤한 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손’, 즉, 소망이 사라져 더 이상 붙잡을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이 떨린다”는 말도 단순한 신체의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멈춰버린 영적인 무릎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세우라, 그 무릎에 버팀목을 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혼자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 명령은 복수형입니다. 즉, “너 혼자 버텨라”가 아니라, “서로 붙잡아 주라”는 뜻입니다. 약한 이의 손을 잡고, 낙심한 이의 무릎을 함께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농어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손이 약해 보이고, 무릎이 떨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붙잡아라. 너희의 손과 무릎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한 이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혼자 쓰러진 이의 무릎 곁에 함께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손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흔들리던 무릎이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4. 하나님은 마른 땅을 새 땅으로 바꾸십니다.(4절)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장면은, 단지 ‘사막에 꽃이 핀다’는 자연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완전히 메마른 민족이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다.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 4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큰 곳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곳, 낮은 곳, 잊힌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고,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이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농촌의 작은 교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사람들은 ‘이젠 끝났다’,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농어촌의 부흥은 단순히 인구가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다시 순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마른 땅에도 봄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땅이 얼어붙어도, 씨앗은 땅속에서 잠들어 있을 뿐,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이 참으로 메마르고 쓸쓸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논밭엔 잡초가 자라며, 주일예배 자리엔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끊겨도, 하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래는 그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흙을 만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땅속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을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씨앗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 씨앗을 적시는 이슬입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들리는 찬송, 논두렁 옆 밭머리에서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봄을 불러오는 거룩한 손길입니다.

지금은 봄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땅을 데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싹을 틔우십니다. 비록 오늘은 메마른 광야 같아도, 내일은 반드시 꽃이 피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마을이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시골 교회에서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 번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메마른 땅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가는 교회”

소병일 목사(서면중앙교회)

〈고린도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⁷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혼자가 아닌 함께’

2025년 1월 작은 농촌마을 홍천군 서면 두미리에 위치한 서면중앙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농촌목회를 오래 전 꿈꾸었던 저에게는 설렘이 있었지만, 아들(고2)과 딸(중3)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있기에 이해하고, 협력해 주었지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안에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가족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딸아이가 이사해서 처음 한 말 “뭐야 눈 밖에 안 보이잖아~” 아이에게는 적어도 ‘CU 편의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편의점 하나 없는 시골에 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 이사한 날 저녁을 먹으려 배달 앱을 핸드폰으로 찾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아빠 배달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먹고 싶은 마라탕과 치킨을 배달시킬 수 없다는 현실에 아이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된 듯합니다. 학교 통학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춘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통학 버스가 턱 없이 부족하고, 시간도 맞지 않아서 결국 직접 등, 하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의 소소한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아내와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그동안 저를 중심으로 움직여준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가족 간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씩 아빠가 농촌 목회를 택하게 된 이유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협력자로 점점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가정이 세워져야 목회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내조자인 아내와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 아들과 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회 및 선교적 현장의 특징(두미리, 반곡리 중심)’

서면중앙교회는 성도 수 20명 남짓한 자립대상 교회이지만, 푸르른 아름드리 숲 안에 넓은 마당을 품고 있고, 서면 중심 언덕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면의 전체 인구는 3,800명입니다. 그중에 서면중앙교회의 선교 지역인 두미리와 반곡리 인구는 약 450명 정도 됩니다. 지역 안에 3개의 교회로 되어 있지만, 성도 수는 20~30명 가량으로 비슷합니다.

대부분 지역민들은 유기농 농업과 축산업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처 팔봉산 유원지와 비발디파크, 그리고 골프장과 숙박업도 많이 활성화되어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면중앙교회가 있는 지역은 팔봉산 유원지와 비발디파크와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외진 지역이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조용한 마을입니다.

선교 대상은 지역 주민들로서 대부분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특성상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층은 60세~65세이며, 가장 적은 인구 층은 0세~10세 입니다. 근처 초등학교 전체 인원은 12명 정도 될 정도로 젊은 층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핵심 인구 연령층은 50세~70세가 전체 인구수의 약 60% 정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의 방향성을 접목하여 전도 및 선교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장 큰 그림은 ‘아름드리 숲’입니다. 아름다운 숲은 그냥 조성되지 않습니다. 잘 가꾸어야 하죠. 그리고 잘 가꾸어진 아름드리 숲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그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길 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57년이라는 역사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 가셨습니다. 선대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심고, 물을 주었던 사역의 현장을 이어받아 저 또한 이곳에 부름 받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한 굴곡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듯이 교회도 굴곡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으며, 슬픈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연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3:6~7)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선대 목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제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지역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① 문턱 낮추기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농촌 목회를 꿈꾸어 왔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위한 마음을 주셨고, 그곳이 농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면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과 부목사 시절에 농촌 목회의 현장을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목회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농촌 목회를 감당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농촌 목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역 텃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역 텃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진다 는 것은 자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본 것입니다. 두미리와 반곡리 마을회관을 다니며 절기 때 음식과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부역활동(공동업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지역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그들과 부대끼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금요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전도대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대를 운영하는 초기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논과 밭, 축사에 계시는 시간 들이 많기에 직접 그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박카스와 제가 직접 구운 당근 빵을 포장하여 간단하게 요리 하실 수 있도록 전도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을 통해 들리는 소문에 당근 빵이 너무 맛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만나며 소통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번 만난 분들은 다음에 만날 때 알아보시곤 인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여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임하여 첫 번째로 이웃을 초청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들을 먼저 초대하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마을 이장님, 반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특송도 준비하고, 예배 후에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웃들이 초청에 응해 주실지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전도하며 만났던 그 작은 접촉점들을 통해 초대된 분들이 대부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4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빈 성전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② 선교를 위한 문화 사역 및 공간 창출

교회의 건물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느껴져 언제든지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그러한 편안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한 번 오는 것이 힘들지만, 한번이 두 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특별히 두미리와 반곡리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악 콘서트, 각종 유익한 강연과 세미나, 작은 공연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 휴게 공간, 독서 모임과 소모임 공간을

아이들 둔 부모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점입니다. 이러한 접촉점이 준비될 때에 전도에 힘을 얻게 됩니다.

③ 미디어를 활용한 교회 홍보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창구

교회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 삼일예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쇼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자립교회 성장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과 목사의 라이프, 예배와 사역 이야기를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을 사역에 참여하여,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을의 발전을 통한 사람들의 유입은 곧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트 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선도적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면 두미리 지역은 농사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생계를 위한 수익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화가 되지 않았기에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촌 목회를 준비하며,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노동력으로 안정적 수익을 갖추게 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스마트팜 농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공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성공 사례를 가진 농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숲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숲, 누구든지 편안히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고향과 같은 장소,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런 서면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않습니다. 저와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헌신과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헌신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반듯이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노회와 충주노회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김태웅 목사(은혜교회/충주노회 전 노회장)

I. 서론

금번 110회기 총회 농어촌주일 자료집에 직거래장터 사례보고를 요청받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벌써 일년이 지났다. 아직도 교회 옆 야동초 운동장에는 당시의 사랑과 온기가 만져질 듯 남아있다. 지난 주 충주노회를 마치고 나는 노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감사한 것은 올해에도 제2회 직거래장터가 충주 효성교회에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 두 번째는 쉽지 않다. 첫 번째 시도의 목적에 따른 성취도가 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으로 상호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아 이어지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나는 이 글에서 작년에 있었던 노회 간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사례를 1. 동기 2. 준비 3. 진행 4. 평가로 단락을 나누어 보고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고민하는 교단 산하 전국의 69개 노회의 농어촌선교부에 시대정신이 담긴 작은 사례가 되기를 소망한다.

II. 본론

1. 동기(動機)

노회간 농산물 장터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온라인쇼핑이 만개하는 시대,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식탁에 오를 수 있는 새벽배송이 가능해진 시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연관상품 목록이 리스트업되고 가장 좋은 상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아 스크린을 쓱 밀기만 하면 최저가에 결제되어 집 앞까지 오는 시대에 농산물을 사러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물건을 사서 차에 싣고 서울로 다시 온다는 이 불편한 장터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멋진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회간 농산물장터는 힙(hip)하다>. 젊은이들에게 힙하다는 말은 가장 멋지다는 말이다. 해방촌의 경리단길이 팝업의 성지 성수동이 삼각지와 남영동이 이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장소에 담긴 역사와 서사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해방촌에서 고단한 근현대사를 성수동 공단지구에서 금속제조업의 치열함을 남영동에서 분단조국의 흔적을 그들 나름의 진정성으로 소비하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이룬 성취와 공헌에 대한 헌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힙(hip)은 허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이다’¹⁾. 이들은 기성세대가 이룬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고 약속은 어떻게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적

1) 107회기 총회 도농사회처 농어촌선교부 정책자료집, 48쪽.

과제를 실천해낼까를 고민하며 이들의 고민을 음악에 춤에 문화 예술에 담아낸다. 언제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왔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같은 해 독노회가 세워지고 연이어 지방노회들이 생겨났다. 5년 뒤인 1912년 9월 1일에는 역사적인 <조선장로회 1회 총회> 이후 약진을 거듭해 왔다. 1884년이 갑신정변이고 1885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부산입항임을 생각할 때 한국근대화는 한국교회사와 함께 해 온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의 근대화와 함께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겨났고 일제 강점기에도 남북전쟁 때에도 이후 분단조국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소외된 중증환우들의 똥 기저귀를 갈고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걸레 들고 전국에서 모여 기름을 닦으며 백성들의 좋은 친구가 된 이는 교회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가파르게 그 간 쌓여온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것이다.

노회간 농산물장터의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매년 서울노회는 소속 19개 교회에서 일억 칠 천 여만 원을 지원하여 충주노회 자립대상교회 28개 교회에 월 평균 87만원의 목회자 생활비가 지원되도록 돕고 있다. 교단의 공교회성이 빛나는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교회도 피로도가 높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교인감소와 재정위축이 더 체감되는 곳은 대형교회들일 것이다.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 3개년(2022-2024) 지침에는 이들의 고심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탁월한 은혜가 담겨있다.²⁾ 농산물 장터의 동기는 이러한 좋은 교단에 몸담고 있는 노회로서 감사를 꼭 표현하고 싶은 감정의 발로였다. 작고 연약한 농촌교회가 많은 노회이지만 농사지는 유기농산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아육된장국 한 그릇 대접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랐다.

2. 준비(準備)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는 설득하고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 농어촌선교부는 1928년 제12회 총회 시 농촌부가 교단상임부서로 신설된 이래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세계교회사적으로 농업농촌의 과제를 교단의 상임부서로 조직한 곳도 또한 백년을 이어오고 있는 교단도 없다. 대부흥운동으로 촉발된 기도와 복음으로 대별되는 에반젤리즘과 함께 교단의 양축을 이루는 것이 에큐메니즘이다. 1928년 처음으로 총회 보고서에 등장하는 “국제선교회의 문서를 역술하여 각 노회에 보내기로 하다”³⁾에서 “국제선교회”를 “예루살렘선교대회는 1928년 3월 24일~4월 8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대회이다. 당시의 주제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그리고 삶과 노동(Life and Work)이다”⁴⁾라고 발췌한 것은 한국교회사 안에 에큐메니컬의 잊혀진 연결고리를 찾은 힙한 발견이라 할 수

2) 2025년 총회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 및 해설서, 1쪽, “단순히 목회자 생활비 지원중심의 제한성을 벗어나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지원과 교회자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의 길을 여는 방식으로 전환”을 명시했다. 이는 자립화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목회자 생활비 지원 중심을 넘어 복합적 목회지원으로 전환을 의미하지만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자립’과 ‘성장’이었다. 그러나 ‘자립’과 ‘성장’의 한계는 이전 두 사업의 평가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반목회지원사업의 방향은 교회동반성장사업을 계승하되 개 교회의 생존을 위한 ‘자립’과 ‘성장’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 교회”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3) 『제17회 회록』,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 1928.9.7.~13. 대구 신정교회당), p. 41.

있다. 당시 한국대표로 파견된 6인은 신흥우, 양주삼, 정인과, 김활란, 노블, 마펫 등 6명⁵⁾중 신흥우, 김활란이 귀국 시 들른 덴마크는 당대의 농업국가요 사절단 방문 100년 전에 이미 그룬트비에 의해 시작된 삼애사상에 의해 상당한 진보를 거두고 있었다. 그의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땅사랑은 후에 교단의 초대 농촌부 상임 총무였던 배민수 목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문화적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다.⁶⁾

그렇다면 109회기 총회 때 시행된 농산물직거래 장터는 12회기 총회부터 준비된 한국교회의 오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교단은 108회기 총회에서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장통합 농어촌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를 전국 이천교회를 표본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109회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자를 넘어 함께 열어나가는 농어촌 선교” 미래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제 110회기에서는 임원회로 일임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한 번 더 허락되어 “농어촌교회 매핑”을 실시하여 교단산하 전국농어촌교회 편람이 제작된다면 그 사명의 일단락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스스로 성취하신다. 솔라이어마하는 이를 포지티브 사이언스⁷⁾라고 하였다. 신학은 교회공동체의 역사와 조직안에 구체화 된 학문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농촌부 설립 94년 뒤 2024년 충주노회 24회기(당시 노회장 신현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태웅 총무 오명근)시에 직거래장터 허락을 받는다. 물론 2023년 가을부터 노회임원회에서 허락받고 서울노회(당시 노회장 이승철장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연구목사 서기 김만목사)와도 긴밀히 논의해 가능성을 타진했음은 물론이다. 결국 서울노회와 충주노회가 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했다. 행정이 뒷받침 되었다면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것 밖에 없다.

준비의 개괄은 장신영농조합(당시 회장 손은기목사)⁸⁾에 일임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들은 지난 20년간 실행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년 도시교회와 장터를 열어나왔기 때문에 장터의 전체적인 인원과 규모에 따른 물품구색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세부적인 준비에는 꼬박 일 년의 시간이 걸렸다. 준비시의 어려움은 매우 많았다.

내부적 어려움 1. 장터의 당위성에 관한 의문이 있었다. 기본 행사비 500만원(서울노회250, 충주노회250, 물론 나중에는 더 들었다)로 차라리 자립대상교회에 나누어 주는 편이 더 직접적이지 않느냐는 반론이었다. 2. 장터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이었다. 이미 자립대상교회중 반 이상은 농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나올 수 있는

4) 제109회기 총회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혼자를 넘어함께 열어나가는 농어촌선교』, (나눔사:2025) 66쪽,

5) *ibid.*, 32쪽.

6) 『민족문화대사전』 2주일 동안 그 실태를 조사하였고, 귀국 직후 이들을 중심으로 YMCA나 YWCA의 주요 사업은 농촌 사업으로 정해졌다. 또한 직접 예루살렘을 다녀온 김활란은 『청년』 (그전에는 한국에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다. 뉘집 자제 혹은 여식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었다) 1928년 11월호에 게재한 「예루살렘대회와今後 기독교」라는 글을 통해 ‘신앙 생활의 사회화와 실재화’라는 시대적 명제(命題)를 다시 확인하였고, 기독교를 민주화하고 사회화·실재화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게 된다

7) 한국농신학연구회, 『농신학, 살림과 평화의 길』, 150쪽.

8) 장신영농조합은 농업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자 2004년 2월에 북충주와 남원주의 지역교회 목회자 7인이 결성한 단체이다.

역량마저도 소진된 상태인데 물건을 준비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었다. 3. 위의 2.와 연관되어 자립대상교회들의 단합도 목적에 들어갈 텐데 개 교회 형편상 어느 교회는 참석하고 어느 교회는 빠진다면 서로 위화감이 커지지 않겠냐는 반론이었다. 4. 수익성에 관한 의문이 있었다. 수익을 위해 점심을 사먹게 하자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수익은 간접효과이고 행사의 키워드는 감사라는 것을 재점검했다. 나중에는 음식준비를 위해 노회여전도회 등 봉사자들을 물색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러면 교회별로 3~400인분의 반찬을 한 가지씩 해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쉽지 않았다. 다음은 준비시의 내외부적 상황을 swot 교차분석(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reats)을 통해 정리해본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외부환경</p> <p style="text-align: center;">내부환경</p>	<p style="text-align: center;">[S, 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노회의 신생노회로서 수년간의 노회 내 갈등을 비교적 신속히 봉합함으로 갈등비용 최소화에 따른 기회비용 기대치의 상승 - 서울노회와의 안정적인 관계망 	<p style="text-align: center;">[W, 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적 이해가 부족하다. 아직도 지원노회 피 지원노회라는 프레임이 강하다. -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작은 노회의 예산 부족은 상시적인 약점이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O, 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농어촌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로 선제적인 정책모형 구축요청이 드러났다. - 교단을 대표하는 노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노회는 교단 사업에 적극 협력해왔다. 	<p style="text-align: center;">[S, 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고 작은 충주노회(13년역사)와 교단의 유력한 서울노회(93년역사)와의 협력으로 명실상부한 <정책총회-사업노회>의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W, 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노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행한다.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사용하되 본래의 취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T,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및 기존사례의 부족 - 사업근거의 불명확성 	<p style="text-align: center;">[S, 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장신영농조합을 활용하기로 한다. - 시행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특별위원회의 정책모형을 사업근거로 삼을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W, 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에 장터의 완성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한번을 잘못하게 되면 2차 장터는 없을 것이다. 대내외적 역량을 동원하기로 하다.

3. 진행(進行)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10월 30일 충주시 소태면의 시골학교 운동장에서 “서울노회-충주노회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었다. <주최>는 양 노회의 동반목회지원위원회가 <주관>은 지역에서 20년간 연합 사업을 펼쳐온 장신영농조합이 맡았고 <장소>는 은혜교회의 소재지인 야동의 야동초⁹⁾에서 진행했다. <일시>는 시월의

9) 지금은 쇠불리교육협동조합이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쇠불리교육협동조합은 야동(治洞, 쇠불릴야 마을동)을 우리말로 바꾸어 지은 이름의 법인이다. 2017년 당시 지역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민들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게 되었다. 도시교회에서 올 수 있는 가능한 요일이었고 농촌은 이때가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했다. 조용하던 마을이 생기를 찾고 다소 추울까 걱정했던 날씨는 따뜻하고 청명했고 오랜만에 시골폐교에 풍물패 징소리가 울리고 활기가 가득한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었다.

쇠불리교육협동조합에 농업연수차 와있던 말레이시아 청년성도들이 숙련된 솜씨로 무대설치를 도왔고 하루 전날에는 충주노회원들이 모여 당일 동선을 고려해 천막을 치고 의자를 배치하고 만국기를 걸었다. 천막과 의자는 개 교회 보유분과 부족분은 효성교회에서 협조했다.

한편 별도의 공간(학교식당)에서는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정운 목사)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쇠불리교육연구소장 한도희 박사) 세미나 시간이 있었다.

떡메도 치고 붕어빵도 굽고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사는 4시경 마무리 되었다. 남은 것은 모시고 온 성도들 인사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 천막과 의자 치우는 것이다. 노회 내 젊은 목사님들이 팔을 걷고 도와 트럭에 실려 보내니 금방 정리가 되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시작된 행사가 사고 없이 은혜 중 마무리 되었다.

4. 평가(評價)

행사 후 총무가 질문지를 작성해 만족도 조사를 했고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는 개교회의 농산물과 준비한 먹을거리 판매량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언급들이 눈에 띄었다. 장터의 동기에 대한 이해부족은 여전히 남은 숙제로 보인다. 다만 이번 2회차(2025.10.25.)에는 더 보완해서 자립대상교회와 서울노회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Ⅲ. 결론

교회는 다시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힙(hip)플레이스를 발견해야 한다. 허리의 신경계통에 윤집궐중(允執厥中)하여 딱딱해진 허리 근육을 풀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경다발이 골반을 거쳐 고관절을 지나 발끝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양극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말이다. 여인의 향유욕함을 깨뜨린 것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화와 존귀의 관(시 8:5)이 다시 씌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다. 농촌교회건 도시교회건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다. 거지는 거지의 말(거짓말)을 한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

과 함께 결성해 교육지원청의 마을학교사업을 유치해 지역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원을 받았으나 결국 2019년 2월 야동초는 폐교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뒤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장 사업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를 임대받아 지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이다. 장터란 물질이 오가는 곳이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장터이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가장 값진 진주라고 발견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주신 것처럼 도시교회는 농촌교회가 정성껏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가치를 알아 좋은 값에 사주기 바란다. 농촌교회는 가난은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처럼 기품 있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반드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를 찾게 되어있다. 교토의 주택가 쇼센(小川)에는 물고기가 살고 루체른의 소들은 워낭소리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라인 강의 물줄기는 맑기가 그지없다.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겪고 산업화의 피해를 입고 나서야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 관리하고 보존했기 때문이다. 강심이 훤히 보이던 단양의 옥빛 물도 개울마다 뜰채로 떠 한술 뿜어 넘치던 새뱅이도 이제는 온데 간데없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개발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뛰어난 안목으로 한국은 금방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제110회기 총회 농어촌선교부 도농직거래장터 안내

1 사업 개요


- 주최 : 장소제공교회
- 주관 : 총회농어촌선교부
- 협력 : 총회도농직거래장터위원회
- 물품제공 : 농어촌교회 목회자 (농산물 생산자)
- 사업기간 : 연중(5월~11월)
(하절기/동절기/온라인장터)

... 총회농어촌선교부
 ... 노회-노회, 교회-교회
 ... 도시교회(직거래장터)
 ... 농어촌목회자협의회
 ... 농어촌교회(생산자)



2 목 적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교회(도시)와 교회(농어촌)가
 상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농어촌교회를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생명공동체 운동을
 함께 이루어 가는 기회를 갖는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창 1:29)

3 기대 효과

<도시교회>

- 농어촌교회를 돕는 협력자 역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생을 위하여 교류와 화합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생명 먹거리의 소비자 역할로 농어촌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교회의 성공모델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 생명 먹거리를 공급하는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명농업의 현장에서 유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교세감소로 수축된 재정적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농어촌교회가 높은 자존감으로 건강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4 기본 계획

■ 기본계획 6단계

1단계(7주~8주 전)

- 일정준비 및 협의단계

↓

2단계(5주~6주 전)

- 업체선정 및 운영단계

↓

3단계(4주~3주 전)

- 홍보작업 및 계약단계

↓

4단계(2주~1주 전)

- 환경정리 및 점검단계

↓

5단계【행사당일】

* 총괄 운영

↓

6단계(행사 후 1주~2주)

- 평가회 및 후속 프로그램

5 세부 계획

■ 사전준비과정

도시 교회

- 신청접수 : 직거래장터 개장할 교회 섭외
- 목적사업 : 특별행사, 기념일 등
- 직거래장터 개장 시기와 일정조율 (교회력/특별행사/계절별)
- 생산물품 리플릿 선정
- 총괄 담당자 / TF전문팀 / 도우미 배정

농 어 촌 교 회

- 참가 신청서(양식) 접수
- 생산자 인준, 규격화, 제품보상 책임
- 상품의 적절성(품질/가격/수량)여부 확인
- 30교회/150가지~200가지 품목 확보
- 상품 스티커(신뢰성) 제작(생산자/연락처)

총회농어촌선교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총회청림100주년기념관603호
 홈페이지:http://new.pck.or.kr
 TEL:02)6959-2094 FAX:02)6280-4194

총회농어촌선교부 도농직거래장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 55:7, 열 4:31~32



총회도농직거래장터위원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 55:7, 열 4:31-32



총회를 위한 기도

이런 총회가 되게하여 주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총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총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총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총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총회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겐 희망이 되게 하사
생명이 있는 총회로 부흥하게 하소서